

#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및 경제적 가치

## *A Profile of the Productive Activities of Korean Older Persons and Economic Valuation*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본고는 새로운 생산개념에 기초하여 통계청에서 2004년도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살펴보고 그러한 생산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 후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 있음.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생산성 개념이 '생산적'인 활동을 공식적인 노동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는 협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새로운 생산활동 개념에 기초하여 2004년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노인이 실제 하고 있는 생산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그러한 노인의 생산활동이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갖는 위상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노인이 실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여를 가시화하고자 한다<sup>1)</sup>.

본고에서는 노인의 생산활동을 기존의 경제

활동참여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및 지역사회참여를 포함하는 무급노동까지 확대한 개념, 즉 기존의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 생산활동과 비SNA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sup>2)</sup>.

## 1.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본고에서는 노인이 행하는 생산활동을 협의와 광의로 정의하였다. 협의의 생산활동은 노동시장 참여활동을 의미하며, 광의의 생산활동은 협의의 생산활동 이외에도 가정내 가사

1) 새로운 생산활동 개념의 제시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국민계정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적 노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이루어졌다.

2) 본고는 비생산활동도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영적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SNA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 논의와는 구분된다. 단, 사회적·심리적인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의 비가시적인 경제적 생산성조차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노인의 경제적 생산성 인식의 외연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과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분류해보면 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하는 노인, 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노인의 41.0%가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자이며, 49.9%가 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은 하고 있고, 9.1%는 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즉 약 91%의 노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총 6시간 29분을 생산적 활동에 쓰고 있으며, 이중 67.4%가 협의의 생산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산활동을 협의로 정의하는가 광의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 현황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율은 남자노인이 54.3%로 여자노인의 41.6%보다 12.7% 포인트 높다. 또한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남자노인은 총 5시간 38분의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자노인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행위시간이 높아 생산적 활동에 7시간 15분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참여를 하는 남자노인의 경우 전체 노동시간 중 노동시장 참여활동이 82%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우는 53.4%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노인의 경우 다수가 노동시장참여와 동시에 가사노동과 같은 무급노동을 하고 있

기 때문이다.

반면, 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여자노인의 경우 월등히 높다. 동비율이 남자노인은 34.3%이지만 여자노인은 60.2%로 남자노인에 비하여 약 26%포인트가 높고 여자노인의 협의의 생산활동 행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여자노인이 4.2%로 남자노인의 16.4%보다 월등히 낮다. 또한 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하고 있는 여자노인의 평균생산활동 총 행위시간은 3시간 36분으로 남자노인의 1시간 54분의 약 2배에 달하는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은 연령군에서 협의의 생산활동에의 참여율이 감소하여 65~69세군은 49.4%, 70~74세군은 40.8%, 75세 이상은 29.6%이다. 반면 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후기노인층에서 높게 나타나, 7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55.8%이다. 어떠한 형태의 생산활동에도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 또한 후기노인에게서 높아, 각 연령군별로는 5.6%, 8.4%, 14.7%이다. 이는 후기노인의 경우 신체적인 제한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생산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이며 중요한 연령적 분기점이 75세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농가노인의 80.9%가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14.3%는 협의의 생산활동은 아니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어 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이 4.7%에 불과하다. 비농가의 경우는 28.6%가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61.0%가 협의의 생산활동은 아니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직업분포에도 반영되어 농림어업 숙련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57.7%에 달하고 있다(표 2 참조).

결과적으로 비농가 노인의 10.4%가 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즉 농가는 절대 다수의 노인이 전통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비농가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행위자의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협의의 생산활동참여에는 농가노인이, 광의의 생산활동에는 도시지역의 노인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하지만 실제 생산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편, 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광의의 생산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는, 교육수준별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이는 한국노인이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산활동 외의 자신의 성숙을 위한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가구주와의 관계와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살

펴보면 가구주의 부모나 조부모인 경우 생산활동에의 참여율이 낮고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율이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의 경우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사별·이혼상태인 노인이 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아 62.1%에 달하고 있다.

주택소유여부별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율이 월등히 높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어떠한 생산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은 각각 9.5%와 7.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생산활동 참여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 2. 한국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

### 1)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

한국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이 갖는 가치를 환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노동의 경우는 총합적 대체비용법<sup>3)</sup>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가치 산출에는 ‘가사 및 관련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활용되었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활동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sup>4)</sup> 전직

3) 본 연구가 노인의 생산활동이 갖는 가치를 산출하는 첫 번째 작업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다양한 가치 평가 방법 중 가장 단순한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였다. 가사노동가치산출의 경우 다양한 방법 중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산출된 경제적 가치가 가장 적다.

표 1. 한국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생산활동 참여실태

(단위: %, 분)

	생산활동 참여(A+B+C)					생산활동 비참여
	협의를 생산활동 참여(A+B)				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참여율 (참여자의 총 생산활동 참여시간)	협의를 생산활동에만 참여	협의와 광의의 생산활동에 모두 참여	총생산활동 참여시간 중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시간의 비율 (%)		
	(A+B)	(A)	(B)		(C)	
전체	41.0(388.8)	8.6	32.4	(67.4)	49.9(188.1)	9.1
성별						
남자	49.2(338.0)	19.7	29.5	82.0	34.3(114.4)	16.4
여자	35.6(435.4)	1.3	34.3	53.4	60.2(216.0)	4.2
나이						
65~69세	49.4(431.2)	11.0	38.4	70.2	45.1(211.4)	5.6
70~74세	40.8(366.6)	9.0	31.8	68.1	50.8(194.0)	8.4
75세 이상	29.6(318.3)	4.9	24.6	59.9	55.8(156.4)	14.7
농가구분						
농가	80.9(401.8)	16.2	64.7	70.3	14.3(175.1)	4.7
비농가	28.6(377.2)	6.3	22.3	64.9	61.0(189.1)	10.4
교육정도						
무학	42.7(400.4)	5.5	37.2	60.8	49.8(187.9)	7.5
초등학교	43.0(379.2)	9.6	33.4	69.6	49.1(199.6)	7.9
중학교	37.0(373.4)	12.2	24.7	76.0	49.6(180.0)	13.5
고등학교	35.9(397.5)	12.4	23.5	79.8	52.0(185.0)	12.2
대학 이상	33.1(340.6)	17.0	16.1	81.7	51.2(143.5)	15.7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49.9(372.9)	13.5	36.4	73.3	42.3(164.1)	7.7
배우자	41.6(448.5)	1.4	40.2	50.3	52.6(251.5)	5.8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	23.3(372.9)	4.3	19.0	65.0	62.2(179.8)	14.5
조부모	20.1(311.5)	2.3	17.8	60.3	70.8(202.3)	9.1
기타	32.9(532.0)	13.7	19.1	75.1	67.1(190.6)	0.0
혼인정도						
미혼	25.6(230.0)	0.0	25.6	30.2	74.4(165.0)	0.0
유배우	48.5(384.3)	13.4	35.1	71.5	41.0(187.7)	10.5
사별, 이혼	30.8(398.7)	2.1	28.7	58.6	62.1(188.5)	7.1
주택 소유여부						
있음	44.5(386.3)	9.5	35.0	67.4	46.0(188.8)	9.5
없음	25.3(408.0)	4.6	20.8	67.5	67.2(185.9)	7.4

자료: 통계청,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표 2. 협의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노인의 직업분포**

직업	비율
의회의원, 고위공무원, 관리자	2.4
기술공 및 준전문가	1.5
사무종사자	1.8
서비스 판매	12.1
농림어업 숙련업	57.7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2.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
단순노무, 기타종사자	20.4
전체	100.0

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중 직업이 파악된 비율은 88%임.  
 자료: 통계청,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종의 평균임금을 활용하는 기회비용방법을 적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전직종의 평균임금을 활용하였다. 한편, 노인이 행하는 유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도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으로 산출해보고자 한다. 동일한 틀에 의하여 노인이 행하는 유급 및 무급의 생산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의 경우는 대분류 직업별 평균임금을 적용하였다.

임금수준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각 임금은 모든 경제활동의 경우 남녀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추계를 위하여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직종

별·성별 임금을 산출하였다.

한편,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계는 노인의 거주지역과 성에 따라 4개 집단(비농가남자노인, 비농가여자노인, 농가남자노인, 농가여자노인)으로 나누어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이는 임금수준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분명하고, 외국에 비하여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이유가 일차산업종사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sup>4)</sup>.

또한 경제적 가치 산출의 대상은 광의의 생산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경제활동,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자원봉사이며, 협의의 생산활동인 경제활동, 가정내 가사노동(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자원봉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노인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계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노동시장 참여활동

$$EL = PL_j \times TL_{ij} \times WL_{ik} \times 365$$

단, EL은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

i: 남, 녀      j: 농가, 비농가

EL: 노동시장 참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

PL<sub>ij</sub>: 노동시장 참여자수

TL<sub>ij</sub>: 노동시장 참여시간,

WL<sub>ik</sub>: 직업별 시간당 임금

4) 김태홍·김난주·권태희(2007).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경제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인구학』, 제30권 제3호, pp.83~105.

5) 연령의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로부터 75세 이상 연령군의 안정적인 임금수준을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령군별 임금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2) 가사활동

$$EH = Ph_{ij} \times Th_{ij} \times Wh_i \times 365$$

단, EH는 노인의 가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

i: 남, 녀      j: 농가, 비농가

EH: 가사활동의 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

Ph<sub>ij</sub>: 가사활동 참여자수

Th<sub>ij</sub>: 가사활동 시간

Wh<sub>i</sub>: 가사 및 관련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3) 자원봉사활동

$$EV = Pv_{ij} \times Tv_{ij} \times Wv_i \times 365$$

단, EV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

i: 남, 녀      j: 농가, 비농가

Ev: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

Pv<sub>ij</sub>: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수

Tv<sub>ij</sub>: 자원봉사활동 시간

Wv<sub>i</sub>: 시간당 임금

경제적 가치 평가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인므로 평가대상이 된 활동은 노동시장 참여활동, 가정내 가사노동(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자원봉사참여 및 봉사활동 - 광의의 자원봉사이다. 활용한 자료는 인구 규모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06)의 2007년도 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임금은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기준년도는 인구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이다. 활동참가율과 활용참여자

의 가시간은 통계청의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2)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에서 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07년 기준 48조 7,550억 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GDP 대비 5.4%에 달하는 것이다. 이를 생산활동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유급노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28조 5,827억으로 GDP 대비 3.17%에 달하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19조 2,275억 원으로 GDP 대비 2.13%이며, 자원봉사활동은 9,448억으로 GDP 대비 0.1%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노인의 생산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노인 1인당 1천14만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구성을 살펴보면, 58.6%는 협의의 생산활동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가사노동과 자원봉사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협의의 생산활동만으로는 노인이 행하고 있는 기여의 일부만을 파악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추계된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도시여성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가장 그 규모가 커 19조 2,968억에 달하여 전체 가치의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의 약 2/3가 가사노동에서 발생하고 있다. 총 경제적 가치의 28.1%인 약 13조 6,894억은 도시남성노인에게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76.9%가 유급노동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시여

성노인의 경우와 대조되고 있다.

한편, 농촌남성노인의 경우 총 경제적 가치의 15.5%인 7조 5,801억이며 여성노인의 경우 16.8%인 8조 1,879억 원으로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그 구성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농촌남성노인의 경우 약 90%가

유급노동참여에서 발생하는 것임에 비하여 농촌여성노인의 경우는 약 60%는 유급노동참여에서, 다른 1/3은 가사노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남성노인의 경우 가장 전형적인 성역할분업에 기초한 경제적 가치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도시남성노인과 농

**표 3. 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규모 및 구성**

(단위: %, 백만원)

	경제활동 참여	가사노동	자원봉사(광의)	합 계
도시남성노인	10,523,888	2,907,119	258,440	13,689,448
도시남성 내(%)	76.9	21.2	1.9	100.0
활동 내(%)	36.8	15.1	27.4	28.1
도시여성노인	6,357,732	12,576,832	362,226	19,296,791
도시여성 내(%)	32.9	65.2	1.9	100.0
활동 내(%)	22.2	65.4	38.3	39.6
농촌남성노인	6,809,719	603,798	167,396	7,580,914
농촌남성 내(%)	89.8	8.0	2.2	100.0
활동 내(%)	23.8	3.1	17.7	15.5
농촌여성노인	4,891,365	3,139,783	156,740	8,187,889
농촌여성 내(%)	59.7	38.3	1.9	100.0
활동 내(%)	17.1	16.3	16.6	16.8
노인 전체	28,582,706	19,227,534	944,803	48,755,044
노인전체 내(%)	58.6	39.4	1.9	100.0
활동 내(%)	100.0	100.0	100.0	100.0

**표 4. 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GDP 대비 비율(%)**

(단위: %)

	경제활동 참여	가사노동	자원봉사(광의)	합 계
도시남성노인	1.17	0.32	0.03	1.52
도시여성노인	0.71	1.40	0.04	2.14
농촌남성노인	0.76	0.07	0.02	0.84
농촌여성노인	0.54	0.35	0.02	0.91
노인 전체	3.17	2.13	0.10	5.41

표 5. 노인의 생산활동의 노인1인당 경제적 가치

(단위: %, 원)

	경제활동 참여	가사노동	자원봉사(광의)	합 계
도시남성노인	7,467,299	2,062,767	183,378	9,713,444
도시여성노인	2,818,281	5,575,109	160,569	8,553,959
농촌남성노인	13,356,058	1,184,245	328,318	14,868,621
농촌여성노인	7,703,909	4,945,164	246,866	12,895,939
노인 전체	5,942,351	3,997,408	196,425	10,136,184

표 6. 참여노인 1인당 가치

(단위: %, 원)

	경제활동 참여	가사노동	자원봉사(광의)	합 계
도시남성노인	20,916,804	3,178,377	7,335,137	31,430,318
도시여성노인	11,645,791	5,899,586	4,339,704	21,885,081
농촌남성노인	15,422,699	2,014,021	9,380,512	26,817,232
농촌여성노인	10,083,650	5,244,077	5,741,067	21,068,794
노인 전체	14,493,538	4,874,888	5,777,199	25,145,625

촌여성노인은 노동시장참여를 통한 경제적 가치 산출과 더불어 가사노동에의 참여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도 일정한 비중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시여성노인의 경우는 가사노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유급노동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3. 사회정책적 함의

본 연구결과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다양한 생산활동 참여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계량화 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령화를 사회의 부담으로 보는 견해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해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노인에 대한 각종 자료 작성에 노인이 행하는 생산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그것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각종 교육내용에도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비노인층이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확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인'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이 행하는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각종 제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광의의 개념에 기초하여 산출된 노인의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노인의 법적 지위나 다양한 경제·사회적 부문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노인이 행하는 생산적 활동의 가치가 손해배상이나 조세제도에 있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노인의 법률상의 불이익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정책적인 개선점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이나 조세제도에서 노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제도적인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생산활동의 내용이 변화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노인의 경제활동참여가 매우 높는데 이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일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기회도 감소할 것이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에 따라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유급노동을 하는 노인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층의 유급노동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점이 갖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 유럽국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상대

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행위자의 행위시간도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은 지금과 같은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보다는 고용시장 전반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하겠다. 즉 실제적인 정년연령을 높혀 전기 노인까지는 노동시장에서 강제적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조기는 퇴자의 직무경험을 중소기업 등으로 전수하도록 하여 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sup>6)</sup>. 정년연장과 더불어 정년퇴직 후 계속고용제도를 강화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 등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은퇴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도 요구되는데, 현재와 같은 저임금의 단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노인이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이 낮는데 가장 활발한 자원봉사 참여상태를 보이는 독일의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지금 노인의 자원봉사를 통한 경제적 가치는 지금보다 약 8배 정도 높아져 GDP 대비 0.8% 정도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는 지금과 같은 노인의 유급노동참여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노인을 구체적인 생산적 가치를 갖는 다양한 대체 활동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기회제공이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장지연 외(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또한 현재 노인들의 자원봉사참여 행태를 보면 이웃돕기와 같은 비공식적 자원봉사가 많으므로 그러한 일상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를 가시화·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여성노인의 경우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묶어내고 가시화할 수 있는 기재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큰 노년기 생활세계의 성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전반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사회로의 발전이 누적되어 미래의 노인이 경험할 성차를 완화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노인의 가사노동참여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현 남성노인의 가사노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남성노인들의 적극적인 가사노동 참여는 노년기의 남녀차이를 완화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남성노인에게 일상생활

의 독립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활동 외에도 자신이 독립성을 유지하여 타인의 생산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의 의존성은 다른 사회구성원의 생산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 활용한 생활시간조사는 본인이 자료 기입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노인 중 일부 집단을 배제한 결과일 수 있고, 따라서 경험적 분석이 노인전체의 현실보다 과대하게 파악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생산활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추계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국노인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출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접근을 하였으나, 향후는 좀 더 다양한 산출방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본  
문  
지